

힘 받는 ‘반기문 대망론’...야권 ‘호남 3分’ 새구도 긴장

새누리 이정현 대표 체제 출범...출렁이는 대선구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체제 출범으로 내년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당장 새누리당의 비주류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은 물론 호남 민심의 향배에 따라 야권의 대선 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정현 대표 체제 출범은 야권의 호남 민심 확보 경쟁을 촉발시키는 ‘매기 효과’를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호남 민심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3당으로부터 경쟁적 구애를 받으며 정치적 선택을 고민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반기문 카드’ 주목=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의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 친박 인사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비박계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수월치 않게 된 상황이다. 비박계 대선 주자들은 김무성 전 대표를 선두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다. 특히, 친박계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당내 친박 진영이 비박계 대선 주자에 맞서 반 총장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충청권 대선 주자에, 영남의 지지 그리고 이정현 대표를 지렛대로 호남의 지지까지 얻게 된다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반기문 대망론’의 논리다.

하지만, 친박 진영에서 반 총장을 대선 주자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비주류 대선 주자 측과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계파 갈등을 넘어 계파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분당 등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정현 대표가 어떠한 리더십으로 대선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비주류 지지 김무성 입지 흔들

오세훈·남경필·원희룡 타격

친박-비박 분당 상황 올 수도

◇긴장하는 야권=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체제 출범으로 전통적 야권 지지 기반인 호남 표심도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이 대표는 이번 경선 기간 중 대선에서 ‘호남 20% 득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4·13 총선을 기준으로 호남 유권자(424만5800여명)의 20%는 84만9100여표다. 이는 충분히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규모다.

물론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까지 호남에 어떠한 진정성을 보이느냐와 어느 후보가 나서느냐에 따라 가변성은 있지만 20% 득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이미 이정현 대표가 호남에서 내리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에서 호남 민심이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으로 3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당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더민주는 벌어진 호남 민심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로 상징되는 새누리당의 서진(西進) 변수까지 겹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호남에서 더민주와 혈투를 벌이며 타 지역에서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고심 중인 국민의당도 느닷없이 안방에 등장한 새누리당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민심은 야권의 정권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이정현 대표가 강력한 서진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정현 대표 체제 출범은 야권에 ‘매기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10일 오후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비상대책위 대표를 찾아가 얘기를 나누던 중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푸근한 산세와 풍광 ‘우리과 닮았네’



(165) 브라질



비숍 작 '브라질 풍경'

리우 올림픽 열기로 무더운 여름밤을 더욱 뜨겁게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위치해서 지리적으로도 멀고 심리적으로는 더 멀어서인지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 앞으로도 브라질을 여행하는 일은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올림픽으로 인해 들쭉이는 관심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예술에 관한 서적과 화집을 뒤적이게 한다.

많은 동료 시인들에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명으로 인정받는 엘리자베스 비숍(1911~1979)은 화가로도 명성이 높았다. 시를 쓰는 일 만 큼이나 즐겨 그림을 그렸고 콜라주와 구성 작품을 만들었던 비숍에게 브라질은 무척 각별했다.

미국 메사추세츠에서 태어나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비숍이 탐미주의의 건축가인 동성 연인 로타 데 소아레스와 16년 동안 살았던 곳이 브라질이었기 때문이다.

비숍이 수채와 구아슈로 그린 ‘브라질 풍경’은 인생의 동반자였던 연인과 살면서 그렸던 풍경화로 뛰어난 색감과 묘사력이 돋보인다. 연인과

함께여서 생애 처음으로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던 비숍이었기에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산과 밭, 농가의 전원 풍경이 평화롭다. 브라질은 국토가 넓은 나라인 만큼 스펙터클한 풍광이 먼저 떠오르지만 비숍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의외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푸근한 산세와 풍광이다.

평화로운 곳에서 한때의 행복도 잠시, 로타의 자살로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고 이들의 사랑이야기는 브라질 영화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비숍에게도 사랑의 상실은 큰 고통을 주었고 후일 평론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시 ‘한 가지 기술’을 남긴다.

“상실의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지 않다/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상실될 의도로 채워진 듯하니/그것들을 잃는다고 재앙은 아니다.../...두 도시도 잃었다, 멋진 도시들과 내가 소유했던/더 넓은 영토들을, 두 개의 강과 하나의 대륙을/그것들이 그림긴 하지만, 그렇다고 재앙은 아니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이정현 일성 “대통령 중심으로 민생·안보 챙기겠다”

현충원 참배·더민주 방문...새누리 대표 일정 시작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기간 자신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섬기는 리더십’을 언급한 뒤 “서민과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불러서 듣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듣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면서 “결코 불러서 만나는 그런 식의 국민 접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

월 남았는데, 100년의 1년 6개월은 짧지만 5년의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기간”이라면서 “앞으로 1년 6개월은 (자기) 대선 관련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민생·경제·안보를 챙기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방문,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국회 더민주 비상대책위 회의실에서 이뤄졌으며 이 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

개회동을 포함해 약 15분 정도 진행됐다.

애초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도 면담기로 했으나 전주를 방문 중인 박 비대위원장의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 1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 ‘군기집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가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최고위원들이 제한 없이 말해 왔는데, (앞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만 공개 발언을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대 의대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예산 확보 기대”

이정현 대표 지역구 순천·고향 곡성 뜨거운 반응

새누리당 첫 호남 출신 대표가 된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과 고향인 곡성의 반응이 뜨겁다. 상대적으로 호남에 소홀했던 집권 여당 대표로 이 의원이 선출되면서 호남이 최소한 무관심, 소외 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지역구인 순천시민들은 10일 이 의원의 새누리당 대표 선출을 ‘신선한 충격’으로 반기며 지역과 정계 지형변화 등을 예측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자영업자인 김모(59·매곡동)씨는 “앞으로 소외됐던 호남의 예산과 인사 등을 챙기

려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지역민들의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박 대통령을 너무 옹호할지 우려는 된다. 그러나 호남을 대변하는 여당 대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구모(41·연향동)씨는 “이 대표가 내세운 ‘예산 폭탄’의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그를 연거푸 의원으로 선출한 순천의 민심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데는 이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여론의 지원을 끌어내 순천대 의대 유치 등

지역 현안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잠월드 유치를 놓고 광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순천으로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된 ‘이정현 변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고향인 곡성군 지역민들도 26년만의 집권 여당 대표가 탄생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모(69)씨는 “곡성이 이 대표의 지역구가 아니어서 서운한 감이 있지만,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

온라인 사전 상담 신청자 창업특전 제공 브랜드

MOMMYCOOK CAFE

수제버거&치킨

야놀라 프랜차이즈

숙박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웰빙피자



떡볶이 프랜차이즈



세계최대 여성전용 피트니스



키즈&맘스 카페

홈페이지에서 **창업특전** 확인해보세요!

..... **더욱 많은 창업아이템은 현장에서 확인!**

주최 KFA 社團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광주 전남지회

주관 제일좋은전람

후원 한국지역산업연구원

www.yesexpo.co.kr

문의 02)856-1402

2016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김대중컨벤션센터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8.19(금)~21(일)

무료창업세미나 일정

	8월 19일(금)	8월 20일(토)	8월 21일(일)
13:30~14:20	점포마케팅전략	푸드트럭창업?	하반기창업트렌드?
14:30~15:00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15:10~16:00	호남지역에 맞는 외식메뉴개발 전략과 성공사례	외식메뉴 트렌드변화와 성공사례	
			*일부 변경될수있음